

최준희, 5월 결혼 청첩장 공개...11세 연상 연인과 달달

등록 2026.03.17 17:30:59



[서울=뉴시스] 결혼을 앞둔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웨딩 화보가 담긴 청첩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6.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결혼을 앞둔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웨딩 화보가 담긴 청첩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준희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이 올린 청첩장 인증 게시물을 공유했다.

사진 속 청첩장에는 최준희와 11세 연상의 비연예인 예비 신랑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낸 최준희와 깔끔한 턱시도 차림의 예비 신랑의 모습이 훈훈함을 더했다.

청첩장 전면에는 "어느 봄날 우리 결혼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청첩장을 SNS에 처음 공유한 지인은 "축하 꼭 갈게"라는 글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여 예비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앞서 최준희는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연인과 오는 5월 16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